
1950년대 부산지역 이주 여성들의 삶

이송희 / 신라대학교 사학과

目 次

I. 머리말	IV. 이주 여성들의 삶
1. 연구목적	1. 1950년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2. 연구 대상과 방법	2. 이주여성들의 초기 경제활동
II. 부산으로 온 이주여성들	3. 이주 여성들의 정착 후의 삶
1. 이주민으로 가득했던 부산 지역	V. 맺음말
2. 부산으로 온 이주 여성들	참고문헌
III. 이주 여성들의 부산 정착	국문초록
1. 이주 여성들의 정착과정	Abstract
2. 전쟁 이후의 부산지역 여성들	

I. 머 리 말

1. 연구 목적

조그만 포구에 지나지 않았던 부산포는 일제의 강요에 의해 최초의 개항장이 되면서 그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5년의 해방과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부산 지역은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하였다. 해방 후 많은 귀환동포들이 부산항을 통해 귀국하였고 그 중 다수가 부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6.25로 부산은 임시수도가 되었고 전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도시가 되었다. 현재의 부산의 정체성을 찾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1950년 전쟁에 따른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산지역민들의 구성은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었다. 특히 6.25 이후 많은 피난민들과 이주민들로 인하여 부산의 구성원은 숫자도 늘어났고 구성도 다양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필자는 부산의 정체성을 찾음에 있어서 먼저 1950년대의 부산 지역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야말로 부산이 현재의 부산다움을 갖도록 하는 시기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는 임시 수도와 피난지로서 전쟁 후에는 피난민들의 ‘성지’로서 부산이 변화해 갔기 때문이다. 이는 후에 부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중요 모티브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살고 있었던 여성들을 주목하였다. 이제 까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였던 여성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활 일선에 나설 수 밖에 없었고 부산지역은 그때의 특수 상황으로 더욱 그러한 내용을 풍부하게 갖고 있었다. 특히 당시 부산지역에는 각 지역에서 온 많은 이주 여성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부산지역의 현실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살아 가고 있었던 실체들서 또한 지금의 부산 여성을 형성해 가는 데 중요 요인이었다.

다행이 이 시기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 등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지지 않았다. 특히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고 그 전환기에 가장 많은 변화를 거듭 하였을 것으로 생각 되는 지역 여성들의 삶에 관한 고찰은 거의 없었다.¹⁾

1) 이 시대를 서술한 『부산시사』가 있지만 여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서술이 없다. 부산광역시, 1999, 『부산여성백서』, 64-67쪽, 주로 여성운동에 관한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부산지역 한국의 여성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한국 여성들의 삶과도 일정하게 연계를 갖는 1950년대의 부산지역 이주 여성들의 삶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성 삶의 복원과 부산 지역사 정리라는 목적아래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1950년대 이주여성으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여성들의 구술을 그 중요 도구로 하였다. 많은 이들이 생존해 있지 않지만 아직은 그 생존자들이 있어서 당시 자신들의 삶을 구술하여 줄 수 있기에 이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의 삶을 조명해 보았다²⁾.

구술 자료는 2006년 가을 여성학과 대학원생들에게 과제로 “1950년대 부산지역으로 이주한 여성”을 대상으로 구술을 받아오게 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여성학과 대학원생과 기록학과 대학원생과 함께 구술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다.³⁾

것 소개하고 있다. 이송희, 2006, 「여성사회의 변화」, 『자료로 본 부산광복 60년』, 196-199쪽. 보통 여성들의 삶에 관한 내용은 그다지 없다. 당시 피난민에 대한 것으로는 배석만, 2003, 「달동네와 철거민, 피난민」, 『부산의 역사』, 선인, 292-298쪽.

- 2) 당시 진정한 여성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 많은 활동을 하였던 30대 40대 여성들을 보아야 하겠지만 생존자들이 거의 없기에 현재 생존해 있는 당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
- 3) 구술에 참여한 학생들은 2007년에는 장영주, 조은주, 박현숙 등이고, 2008년에는 조은주, 김민영 등이다. 면접 장소는 부산 중앙동 성당 교육관으로 처음(2007)에는 공동으로 같이 면접하였고, 2008년에는 같은 장소이긴 하지만 개별 면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연세가 많은 관계로 사실의 전후 관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였고, 기억력이 희미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경우도 있었고,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여 실명을 밝히기 꺼려한 분들도 있었다.

면접 대상자는 총 18명으로 그들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 정리

순번	이름	출생 연도	고향	이주 경로	당시 결혼 여부	부산 이주 시기	부산 이주 이유	피난 동행자	남편 직업	결혼 연도	이주 후 동거자	이주 후 직업
1	최영순	1925년	황해도	황해도 초도섬 -->군산 -->부산	미혼 (약혼)	1951년	피난 중 미국 이동에 따라	혼자	의항선원	29세때 결혼 1954년 (남편은 재혼)	처음에는 혼자 외롭고, 발해주기	남의집 동사원, 결혼 후 유기그릇장사, 식당일, 산모를 발해주기
2	김옥순	1933년	함경 남도 원산		부산	미혼	1951년	"	가족 (양부모 남동생)	성당에서 강생이가 루 배급, 1954년 쫓겨 결혼	양부모 동생 -->결혼	공사현장에서 모래, 자갈 지어나르고 꿈꿀이죽 장사, 타일공장, 미군버웃만들기, 중국장사
3	홍정숙	1927년	평양	서울 영도포 -->부산	미혼	1953년	피난오다보니	혼자	양복점 점원, 양복가지 파는 일	아는 사람의 소개로 결혼, 1954년(27 세 때)	혼자 살다 결혼	미용실에서 일함. (복에서 배운) -->나중에 살림.
4	계진화	1935년	개성	경기 이천 -->서울 -->부산	미혼	1951년 혹은 52년 추정	"	고모네랑 함머니	군인	(22세 때) 1955년	함머니, 고모네	처음에는 고무마를 팔 결혼 후 천업주부 슈퍼(남편 재대 주),1960년운명
5	김덕재	1931년	남해	부산	기혼	1953년	남편이 일자리(재단사) 찾아 간 후 따라감	아들 테리고	재단사 (양복)	45세 때 남편죽음	남편, 아들	빵 만들어 팔기, 국수 만들어 팔기, 감 팔기, 가죽절여 팔기 -->남편 죽은 후 보험회사 다님.
6	김병래	1926년	천안	서울--> 대전--> 부산	미혼 (독신)	1951년 1.4후퇴	종교적 이유	성당 수녀, 신부님과 고아원생 들과함께		결혼안함	혼자	장교 가족사 식사 육군병원, 성당근무, 메리분 병원근무, 고아원 원감 (신부님이 종교 관련 서적 내보라 하셨다고 함)
7	김복엽	1925년	서울	강원도 -->부산	미혼	1951년 1.4후퇴	피난 중 미국 이동에 따라	혼자			혼자 있다가 중매로 결혼	식모 양과자점에서 일함 편물을 짜서 국제시장에 넣기는 일. (미용기술배움, 40년간 미용실 운영)
8	김성실	1923년	평양	황해도 사리원 -->서울--> 수원-->김 천 -->대구 -->부산	기혼	1951년	피난 중 살길 찾아 오게 됨	시아머니, 친정어머니 남편과아이			남편, 시부모, 친정부모	미군부대 빨래, 장사, 용두산 부근 하꼬방, 영도수용소 등 거주, 남편과 인쇄소 운영

1950년대 부산지역 이주 여성들의 삶 / 5

순번	이 름	출생 연도	고 향	이주 경로	당시 결혼여부	부산 이주 시기	부산 이주 이유	피난 동행자	남편 직업	결혼 연도	이주 후 동거자	이주 후 직업
9	문경구	1920년 호적1917	평안북도 창성군	부산	기혼	1950년	남편따라(남편 이 군청 공무원이라 숙청 피해 전쟁 2년 전에 부산과 있었고 자신도 전쟁 발발 때 내려옴)	아이 3명과 함께	전직 (군청 근무) 문화 방송 총무 부장		남편 아이들	양대배 장사, 국제시장에서 장사, 핸드백 장사, 유아복 장사
10	김춘희	1926년	함경남도 원산	부산	기혼	1951년 1.4후퇴	피난 중 미군 이동에 따라	남편	노동, 재혼 후 남편 노동	1951년 남편 죽고195 3년 재혼	남편	공사장에서 일함, 떡장사, 단무지 공장 다님, 하수구 청소
11	박옥선	1929년	창녕	창녕→ 마산→ 하동→ 부산	기혼	1950년	피난(전쟁으로)	남편과 시집 식구	학교 교사 (→조달 청근무)		남편과 시댁식 구	전업주부
12	김영순	1933년	서울	서울→ 부산	미혼	1950년	피난(전쟁으로)	가족	-	중매로 전쟁 후	가족 결혼 후 남편	떡 장사, 부자집 모모
13	부춘아	1926년	제주도	제주도 →부산	이혼 (처녀공출 피해1945 년결혼)	1950년	정착하기 위해 (이혼 후)	혼자	장사	재혼19 55년	혼자 살다. 중매로 재혼	국제시장에서 시탕장사, 고무공장 다님
14	석복성	1938년	일본 (대구)*	일본→ 대구→ 부산	13세	1950년	피난(대구-부산)	외숙모	-	-	-	-
15	최정희	1927년	평양	전라도(→ 결혼)→ 부산	기혼	1950년	피난(지리산의 빨치산 피해서 왔음)	남편 1남1녀	목수		남편과 아이들 1남 4녀 더 낳음	남편은 문을 만들고, 자신은 파는일 함.
16	*** (1)	1925년	진주	문산(진 주)→부 산	미혼	1950년(→ 전쟁 때)	인민군피해서	어머니, 형제들	-	고성사 람과 결혼	어머니, 형제들	장사, 식모, 술집 부엌 일, 포장마차(부친)
17	*** (2)	1927년	신의주	신의주 →서울 →대전 →부산	기혼	1951년 1.4후퇴	남편(미군부대 군속) 직장 따라	남편, 1남1녀	미군부 대 운전	전쟁전	남편 아이들	담배장사, 빨장사, 국제시장에서 공객만들어 팔, 일장사, 기모노장사
18	홍춘심	1943년	평북 선천	선천→ 개성→ 제주도 →부산	어린이	1950년 대 후반	가족들 따라 피난	조부모, 부모, 동생들	-	-	가족들	오렌지 주스, 과자장사, 공정 세탁공장, 미성시다)

면접에 응해준 이들은 중앙동 성당에 다니면서 노인교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었다. 18명 중 10명은 고향이 북한이고 나머지 8명은 남한 출신이다.

<표 2> 면담자의 출신지역

출신지역	숫자	
이북지역(원적)	10명	1명은 이미 결혼하여 이남에서 살고 있었음.
이남지역(원적)	8명	
계	18명	

이들에게 한 질문은 <표 3>과 같이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하나는 부산에 이주하게 된 경위(이주 시기, 이주 이유, 이주과정, 동반자)와 정착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이주 후의 부산에서의 삶에 대한 것 이었다. 즉 가족사항(결혼여부, 결혼경위, 남편)에 대한 것과 중요하게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였는가, 당시 친구나 교우 이웃과의 관계,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점 등이었다. 그리고 6.25전쟁과 관련한 기억들을 몇 가지 질문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1950년대 부산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신문 자료, 잡지 등을 활용하여 당시 부산 지역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3> 『1950년대 부산지역으로 이주한 여성의 삶』에 관한 질문

분류	질문
*인적사항	1. 귀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 1950년 귀하의 나이는 몇 세이셨습니까? 3. 귀하의 본적은 어디 입니까? 1) 귀하의 원적(친정, 고향)은 어디 입니까? 2) 귀하의 현재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4. 현재의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1) 1950년대의 귀하의 가족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부산에 오게 된 경위	1. 부산은 언제 오셨습니까? 2. 당시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4. 어떤 이유(목적)으로 오셨습니까?
*1950년대를 중심으로... 부산에서의 생활에 대한질문	1. 1950년대 당시 누구와 함께 사셨습니까?(가족사항) 2. 1950년대 당시 어떤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셨습니까? (직업유무, ex-전업주부, 상업종사... 기타등등) 3. 1950년대 당시 교우, 친구, 이웃간의 관계에 대한질문 4. 1950년대 당시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ex-아이들 혼자 돌보기, 남편의 무능력 등..) 5. 6.25전쟁과 관련한 기억들은 무엇입니까? 5-1.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5-2. 피난 혹은 전쟁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은 무엇이었습니까? 6. 1950년대 당시 사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7. 부산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셨습니까?

II. 부산으로 온 이주 여성들

1. 이주민으로 가득했던 부산 지역

해방 직전 남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25,120,174명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이 50.2%를 차지하였다. 해방 이후 남한 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에서 1947년 남한 인구는 17,000,187명이고 여성은 47.9%이다. 해방 이후 여성 비율이 낮았던 것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인구 가운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은 이 시기에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국면에 직면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학병 징병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동포들의 귀환 시 부산항이 중요 관문이 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부산에 잔류하였기 때문이다.⁴⁾ 1946년 12월 말까지 귀환한 동포의 수는 2,683,478명이었고 그 중 471,000명이 경남 지역에 잔류하였다.⁵⁾ 이 때 경남지역에 잔류한 인구 중 상당수가 도시에서의 고용 기회를 바라며 부산에 잔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언론은 부산 잔류 인구를 10만에서 20만 정도로 보고 있다.⁶⁾ 이는 부산 지역 사회와 구성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부산 지역은 일본인이 남겨놓은 적산이나 제조업의 부흥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때 부산은 인구의 갑작스러운

4) 1945년 12월 말 귀환동포의 69%가 부산을 통해 귀국하였다. 최영호, 1995, 「재일 한국인의 본국 귀환, 그 과정과 통계구조」, 『한일관계사 연구』 4, 127쪽.; 류춘도, 2005, 『병어리새』, 336-344쪽. 류춘도의 경우 가족들이 오랜 동안 일본에서 살다 돌아와 고향인 김천으로 가지 않고 부산에 정착하였다. 그 이유는 근대적 직업 찾기, 자영업, 교육 등이었다.

5) 『동아일보』, 1946년 12월 10일.

6) 민주중보는 1947년 말까지 부산항을 통하여 들어온 귀환 동포의 수가 250만명이며 그 중 22만명이 부산에 잔류하고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민주중보』, 1947년 12월 24일.

이입으로 심각한 주택문제, 실업자문제, 밀수문제가 일어났고 여기에 1946년 초 콜레라가 돌면서 쌀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량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였다.⁷⁾

그리고 6.25전쟁과 분단은 월남인을 양산하였다. 당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보면 1949년 8월까지 3,283,000명이었고, 6.25전까지 350만명이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전쟁 시에는 100여만명이 내려와 전쟁 후까지 합치면 약 500만명 정도로 보인다. 여기에 단신으로 내려온 이들이 30%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⁸⁾ 이 때 월남한 사람들은 절반이 서울로 진입하였고, 대부분 대도시로 갔는데 부산의 경우도 많은 이들이 이때 정착하였다. 다음 <표4>의 시기별 월남인들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부산으로의 진입을 볼 수 있다.⁹⁾

<표 4> 시기별 월남인의 시도별 분포(단위:%)

지역 연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1949	45.1	24.2	9.6	2.8	4.7	3.9	3.3	3.3	3.0	0.1	100.0
1955 *	12.9	22.3	26.9	1.4	5.0	4.0	2.3	4.2	20.5	0.5	100.0
1960	42.5	20.4	8.8	2.1	5.9	2.5	2.5	4.1	11.4	0.2	100.0
1966	48.3	24.6	5.7	1.2	4.2	4.8	2.6	1.4	7.1	0.2	100.0
1998 **	32.0	19.1	2.2	2.5	9.4	2.5	6.8	6.3	20.0	0.1	100.0

* 1955년 센서스는 '1.4후퇴' 당시와 그 후에 남하한 월남인의 분포율이다.

** 1998년 7월 이북 5도청 시 도 사무소가 추계한 월남인 추정 인구 비율이다.

자료: 각 연도 총 인구조사, 1966년 특별 인구조사.

7) 박영구, 2005, 『현대 부산의 제조업 1945-2000』,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42쪽.

8) 함인희, 2006, 「광복 60년, 가족제도와 여성 삶의 변화」 『여성과 역사』 4집, 84쪽. 이 주장은 이북 5도청의 통계이고, 1945년에서 49년까지 월남인을 김철은 15만명, 권태환은 7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로 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41-43쪽.

9) 1955년 인구 조사에서 경남에는 130,308명의 월남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산에 거주하는 월남인은 109,723명으로 84.2%에 달하여 월남인은 경남 지역에서는 주로 부산에 집중해 있었다. 김귀옥, 앞의 책, 106쪽.

부산의 경우 1949년에서 1955년 사이 인구가 471,000명에서 1,049,000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귀환동포이거나 피난민 또는 월남한 사람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은 당시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자영업을 해 나가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부산의 제조업은 1949년 변화 계기를 갖게 되었고, 1950년 전쟁의 발발로 초기전에서 유일하게 비점령지구로 남아 모든 공업이 집중되었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특수 전시 상황 하에서 임시수도로서 공업 생산의 중심지로서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공장이전 시설이전 자금이전이 이루어져 제조업들이 호황을 맞았다.¹⁰⁾ 부산의 중소기업 소자본 상공인들에게는 창업과 성장 확대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월남인들의 경우 정부의 월남인 지방정착조치와도 관련하여 부산에 정착하였다.¹¹⁾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많은 이들이 부산으로 오게 하는 중요한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부산지역은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부산사람들의 정체성도 많이 바뀌어 가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부산여성들의 정체성도 아마 이 때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부산으로 온 이주 여성들

면접에 응한 18명의 구술 여성들은 대부분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부산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이다. 이주 시기를 보면 7명은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왔고, 8명은 1951년 1.4후퇴

10) 박영구, 앞의 책, 64-65쪽.

11) 김귀옥, 앞의 책, 108쪽.

시에 왔다. 그리고 3명은 그 후에 이주한 경우였다.

<표 5> 면담자의 부산이주시기

이주시기	여성	
1950년	7명	문경구, 박옥선, 김영순, 부춘아, 석분성, 최정희, *** (1)
1951년	8명	최영순, 김옥순, 계진화, 김병래, 김복엽, 김성실, 김춘희, *** (2)
1952년	3명	홍정숙, 김덕재, 홍춘심
계	18명	

이들 이주 여성들은 10명이 북에서 월남을 한 경우(1명은 고향이 서울)이고, 7명은 남한 내에서 이주한 경우이다. 1명은 북한 출신 이지만 결혼으로 이미 전라도로 이주해 와 살다가 부산으로 온 여성이었다.¹²⁾

먼저 이북에서 월남한 여성들의 고향을 떠난 동기를 살펴보면, 이주 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을 피하여 남으로 내려온 경우였다. 이 경우는 이주가 아닌 피난이 주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으로 17세 때 미혼으로 양부모와 남동생과 이주한 김옥순은 남으로 내려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이주를 위해 서가 아니라 일시적 피난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³⁾

아침에 밥을 먹다 말고 피난을 오게 되었어. 일주일 늦어도 열흘이면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 김장하고 김장독 뚜껑도 못 열어보고 나왔어.

12) 최정희의 경우 이미 결혼하여 전라도 지역에 살다가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

13) 김옥순 구술

미혼으로 고모가족과 할머니와 같이 온 개성 출신의 계진화도 부산에 오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⁴⁾

그 땐 부산에 아는 사람도 없고 더구나 살 생각도 없고... 전쟁 났으니까 피해 있다가 다시 서울로 가고..... 부모님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이와 같이 대체로 잠시 몸을 피하려 한 것이 남으로 오게 된 동기였다. 월남한 여성 10명중 9명이 피난을 이유로 남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¹⁵⁾

단 문경구의 경우는 남편이 이미 숙청을 피해 부산에 2년 전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¹⁶⁾ 전쟁이 일어나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가라고 하여 아이들 5명 중 3명만 데리고 왔다고 한다.

인터뷰를 한 월남 여성 10명중 7명이 가족 또는 인척들과 같이 월남하였다. 원산 출신의 김옥순은 양부모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1.4 후퇴 때 피난에 나섰다. 개성출신인 계진화는 고모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역시 1.4후퇴 때, 평양에서 온 김성실은 시어머니·친정어머니·남편·아이와 함께 1.4 후퇴 때, 문경구는 아이들과 함께, 원산출신의 김춘희도 남편과 함께 1.4 후퇴 때, 신의주 출신의 여성 ***⁽²⁾은 남편과 1남 1녀 아이들과 함께 1.4후퇴 때, 평북 선천 출신의 홍춘심은 조부모·부모·동생들과 함께 피난을 온 경우다. 피난길에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하였지만 가족들과 함께 피난에 나선 경우로 남쪽에서의 정착이 그런대로 쉬울 수 있었다.

14) 계진화 구술

15) ***⁽²⁾는 남편이 미군부대 군속으로 부산까지 왔다고 하나 본인이 피난 온 것이라고 하고, 홍춘심의 경우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먹고 살기 위해 50년대 말 부산에 왔지만 남쪽에 내려 온 것은 피난이라고 하였다.

16) 남편이 군청 관리를 지냈다고 한 것으로 일제에 협력했던 점 때문에 숙청의 대상이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먼저 월남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단독으로 혼자 내려온 경우를 보면, 황해도가 고향인 최영순의 경우 단독으로 1.4 후퇴 때 내려 왔는데, 오빠랑 출발하였다가 부득이 혼자 온 경우였다.¹⁷⁾

어머니가 젊은이들은 빨갱이들이 잡아 죽인다고 하면서 피난을 보냈어. 그 때 남동생은 군에 가 있었고, 오빠는 동사무소에 근무했기 때문에...잡히면 큰 일나지...그래서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해서 오빠랑 입은 옷 그대로 나왔지. 한 일주일 지나면 집으로 돌아갈거라 생각했어...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오빠랑 한 네명 정도가 옷을 가지고...어떠나 보려고 갔다가 두 사람만 겨우 도망쳐 왔대...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 오빠는 잡혀서 죽었을 꺼라고 하드만...초도 섬에서 지난지 한달 쯤 되었을 때 미군들이 큰 배를 타라고 해서 그거 타고 왔는데...내린 곳이 전라도라...군산 해망동 수용소에서 얼마쯤 지내다가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되었어.

서울이 본적이지만 강원도에서 살다 부산으로 피난 온 김복엽의 경우는 강원도에서 혼자 교직에 몸 담고 있다가 1.4후퇴 때 피난 길에 나섰기에 혼자 온 경우였다. 평양 출신인 홍정숙의 경우는 ‘빨갱이들이 자기네 집 재산을 빼앗고 무섭게 해서’ 부모님이 피하라는 권유로 자신만 혼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들은 왜 피난을 왔는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빨갱이들이 잡아 죽인다고해서”(최영순), “공산당을 피해서”(김옥순), “공산당이 우리 집 재산을 집이고 밭이고 모두 빼앗아 버렸지”(홍정숙), “남편이 군청에 근무해 숙청 맞아서...남편찾아”(문경구), “아버지가 동서기로 있었는데 엄청나게 맞아서”(홍춘심) 등 북쪽에서 살 수 없어서 월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그런데 이들 10명 월남 여성들의 월남 시기를 보면

17) 최영순 구술

문경구와 홍춘심의 경우만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피난을 왔고, 나머지 여성들은 다 1.4후퇴 때 국군의 소개나 미군의 이동을 따라 피난을 온 경우였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남인들이 전쟁 이후에 국군의 치안 사업 협조, 국군의 후퇴 시 권유나 강요, 그리고 원자탄 투하설 등에 따라 생존을 위해 피난을 한 경우처럼 문경구와 홍춘심을 제외한 이들은 주로 국군의 후퇴 시 권유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⁹⁾

그리고 이들의 이주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부산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라, 피난 과정에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영순과 김복엽, 김춘희는 미군의 군함을 타고 이동하다보니 부산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많은 이들이 다른 지역을 피난지로 삼고 있다가 부산 까지 내려 온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으로 바로 피난 온 경우는 드물었고, 여러 지역을 거쳐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이주 경로를 보면 주로 서울을 거쳐 수원 대전 김천 대구 등을 거쳐 내려오거나 군산, 또는 강원도, 개성, 심지어는 제주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이주해 왔다.(<표1>참조)

18)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월남인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인터뷰에 응한 이들이 대체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점이 많다고 한다. 실제 전쟁 이후 피난길에 나선 것을 보면 특히 1.4후퇴 때 피난에 나선 것을 보면 전적으로 피난이 그 이유였음을 증명한다.

19) 일반적으로 해방 직후 월남민들은 귀향, 정치 사상적 동기, 식량난과 같은 문제 때문에 월남한 사례가 많았으나, 전쟁 이후에는 국군의 치안 사업 협조, 국군의 후퇴 시 권유나 강요, 그리고 원자탄 투하설 등에 따라 생존을 위해 피난을 하였다. 김귀옥, 앞의 책, 46쪽. 커밍스는 원인을 시기별로 분류하였다. 해방 초기에는 귀향민이 주를 이루고, 토지개혁 이후에는 정치 사상적 이유로 1947년 이후는 식량난으로 월남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블루스 커밍스, 1986, 『한국전쟁의 기원』, 김주환 옮김, 청사, 311쪽.

다음으로 8명(1명은 원적이 이북)의 남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성들의 경우, 고향을 떠난 동기를 보면, 5명의 여성들은 여전히 피난을 목적으로 살던 곳을 떠나 부산으로 오게 되었다. 그 이유를 보면 박옥선은 “결혼하고 시댁이 하동이라 그 곳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서 피난 왔다”고 하고, 김영순의 경우도 전쟁이 나서 서울에서 온 가족이 함께 피난 온 것이다. 진주에서 온 여성도 “진주에 살기가 고단했었어, 인민군과 같이 살았거든... 진주에도 인민군이 들어 왔었어... 비행기 폭격이 심해서 숨고 그랬어”라고 전쟁을 피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전쟁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그 지역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여성들의 경우 생계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부산으로 이주해 왔다. 남해에서 온 김덕재는 남편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온 이후 아들과 함께 남편을 찾아서 왔고, 석분성의 경우도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후 귀국하여 대구에서 살다가 전쟁이 끝난 뒤 외숙모와 함께 13세에 부산으로 이주했다. 대구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부산으로 옮겨 왔다고 하였다. 제주 출신의 부춘아는 남편과 이혼 후 부산이 좋다고 하여 새 삶을 찾아 정착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이렇게 소수에 불과 하지만 정착을 위해 부산으로 이주한 여성들도 있었다.

<표 6> 부산의 이주 동기

동기	여성	
피난	14명	
새로운 삶을 찾아서	4명	김덕재, 부춘아, 홍정숙, 석분성
계	18명	

<표 7> 부산 이주시의 동반자 상황

동반상황	여성이름
남편, (아이들)	김덕재, 문경구, 김춘희, 최정희, *** (2)
남편, 시집부모	박옥선
남편, 시집부모, 친정부모	김성실
부모 형제	김옥순, 김영순, *** (1), 홍춘심
인척	계진화, 석분성
단신	최영순, 김병래, 김복엽, 홍정숙, 부춘아
계	18명

이들의 이주시의 동반자를 보면 <표7>과 같이 김덕재 등은 남편 아이들과 함께, 박옥선은 남편과 시집 식구들과 함께, 김영순은 가족과 함께, 석분성은 외숙모와 함께, 최정희는 남편과 이이들과 함께, * * * (1)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부산으로 왔고, 김병래는 성당 식구들과 함께 왔으며, 부춘아는 혼자서 왔다.

남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경우는 월남한 이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부산을 목표로 해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착을 위해 온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고 피난의 경우에도 김병래를 제외하고 모두가 부산을 피난지로 정하고 이주하였다. 이들의 피난 동기는 순수하게 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Ⅲ. 이주 여성들의 부산 정착

1. 이주 여성들의 부산 정착

부산에 이주한 여성들은 차츰 정착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어떻게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몇 가지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부산이 생계를 꾸려가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부산은 이미 1945년 이후 경제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제조업 등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상업 활동을 하기에 용이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6.25 이후 임시수도였던 부산은 전쟁 중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이익이 얻어지는 지역이었음이 분명하다.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로 6.25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 남자의 집』에서 주인공의 남자친구는 가끔 부산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누나에게 가서 많은 돈을 구해와 여자친구와 함께 그 돈을 쓴다.²⁰⁾ 역시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나목』에서도 주인공의 작은 아버지가 전쟁 중 부산에서 많은 돈을 번 사업가로 나온다.²¹⁾ 이렇게 볼 때 계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쟁 중 부산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²⁾

20) 박완서, 2004,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42-43쪽. 의사인 남자의 누나는 부산으로 피난가서 큰 병원에 취직하여 계속해서 돈을 벌수 있는 처지였다.

21) 박완서, 1994, 『나목』, 세계사, 93쪽. 주인공의 사촌 여동생은 주인공에게 “엄마도 아빠도 작은 택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무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집은 경제사정이 아주 좋아요. 모든 일이 뜻대로 척척 되고 있구나 봐요”라는 편지를 써서 부산으로 오도록 권한다.

22) 이 소설들은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로, 박완서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한 19세의 처녀였다. 여기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이 대체로 박완서와 비슷한 세대의 여성들이었기에 한국전쟁과 관련한 박완서의 책들을 그 시대상을 알려주는 자료로 활용해 보았다.

그러니 만큼 피난 와서 어려운 사람들로서는 다른 지역 보다는 부산이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다.

혼자 월남한 최영순의 경우 처음 부산에서 남의 집 농사를 지으며 그럭저럭 잘 해서 지낼만 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³⁾

처음 부산와서는 남의 집의 농사일을 하면서 혼자 지냈어...배 잘 짜고 농사 일도 꽤 잘해서 배급 같은 것은 받지 않고도 먹고 살았어...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 한달에 쌀 한되 값 정도 받았던 것 같아...

16세에 불과하였던 계진화는 고구마도 이고 팔았고 동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김성실은 대구로 피난가서 1년 살았지만 벌어먹을 수가 없어서 부산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에 와서는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빨래를 하면서 그런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임시수도로서 나름 전쟁의 특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그리고 더욱이 정착을 목표로 해서 온 경우는 무엇보다도 부산의 경제적 조건이 그 중요한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김덕재의 경우는 남편이 재단사 일자리를 찾아 부산에 먼저 왔고 자신은 남편을 쫓아 부산에 왔다. 어떠한 직업을 막론하고 부산 지역에서는 그 일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박옥선의 경우는 남편이 부산 중앙초등학교 교사라 일단 부산으로 왔다고 한다. 신의주 출신의 * ** (2)은 남편이 미군부

23) 최영순의 인터뷰

24) 이숙의, 2007, 『이 여자, 이숙의』, 삼인. 이숙의는 대구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의 부재로 생계를 위해 부산행 열차를 타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전쟁 중 그나마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부산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몰려 들었다.

대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역시 남편의 직장을 따라 부산에 내려와 살게 되었으며, 자신도 장사하면서 경제 기반을 닦아 나갔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정희는 남편이 목수로 문짝 짜는 일을 했는데, 자신도 남편과 같이 일해서 돈을 벌고 살았다고 한다. 특히 평안도 선천 출신의 홍춘심의 경우 피난으로 제주도에서 7년 살다가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위해 부산에 왔다고 힘 주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부산은 전쟁의 와중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것이 휴전이 된 다음에도 많은 이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중요 이유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조건들은 그 후 부산을 상업 도시와 제조업의 도시로 확대 발전시켜 주었고, 국제 시장·자갈치 시장과 같은 전국규모의 시장을 조성토록 하였다.

둘째, 인척들이나 고향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에 부산 정착을 결심하였다고 생각된다. 부산이 임시수도로서 중요 피난 지역이기에 북에서 헤어져난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정숙은 혼자 내려 왔으나 처음에 '아는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다가' 북에서 배운 미용기술로 미장원에 취직하여 먹고 자면서 일했다. 이 경우 자신의 기술이 있었기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 혼자의 몸으로 피난지에서 지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텐데 처음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고, 부산정착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⁵⁾

25) 최영순의 인터뷰

부산에 와서는 계속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싶어 역에 나가고 했어... 그러다 다행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조금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있을 순 없잖아 ... 그러다 미용실에 취직을 하게 됐어... 거기서 먹고 자고 했지... 내가 평양에서 미용기술을 배웠거든

김복엽도 처음 혼자 내려왔으나 사촌 언니를 만나 같이 살면서 부산에서의 생활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사촌 언니가 제주도로 옮긴 후 교사 자리를 만들어 불렀으나 사정상 가지는 못하였다. 26)

점원으로 빵 팔다가 사촌언니가 빵을 사러 왔는데 사촌 언니를 만난 거라. 언니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따라 갔지. 형부가 00총무과 직원인데 피난 온 거라. 그집 식구도 애 넷에 부부해서 총 6명이서 생활하는데 부자살림은 아니라. 외사촌언니니까 고생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살았다. 집이 일본식 집이었는데 나는 방에서는 못 자고 창고 방 비슷한데서 잤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좋았지.

문경구는 전쟁 2년전에 먼저 월남한 남편을 쫓아 피난 왔으나 제부가 군 대령이라 집을 하나 얻어주어서 10년을 그 집에서 살았다. 그 집은 일본식의 적산 가옥이었는데, 그 사이 서울에도 올라 갔으나 다시 돌아와 살았다.²⁷⁾

신의주 출신의 * ** (2)는 할머니 친정식구들이 부산에 살고 있어서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남편 친구들, 고모부, 시외삼촌 등 친척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인척이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주여성들은 차츰 부산에 정을 부치고 살아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6) 김복엽의 인터뷰 내용

27) 문경구 인터뷰 내용

셋째, 미혼 여성들의 경우 결혼이 부산에 정착하게 되는 중요 계기였다. 이때 이주하고 지금까지 생존한 여성들은 대부분 당시 나이가 10대말이나 20대 초반이었기에 결혼 적령기거나 적령기를 넘긴 나이에 해당되었다. 때문에 한 남성을 만나 결혼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특히 전쟁을 겪으며 많은 젊은 남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는 많고 남성은 적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여성 18명중 이주 당시 혼인상태를 보면 7명이 기혼 여성이었고, 2명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8명의 여성(1명은 이혼 여성)이 결혼을 앞 둔 적령기의 여성들이었다. 1명의 여성은 마지막까지 독신이었기에 8명의 여성이 부산 이주 후에 결혼하였고, 기혼여성 중 1명은 남편과 사별 한 후 피난지인 부산에서 재혼하였다.

<표 8> 부산으로 이주시의 혼인상황

혼인상황	여성숫자	
기혼	7	김덕재, 김성실, 문경구, 김춘희, 박옥선, 최정희, *** (2) (김춘희 남편과 사별 -> 재혼)
미혼	8	최영순, 김옥순, 홍정숙, 계진화, 김병래, 김복엽, 김영순, *** (1) (김병래는 독신)
이혼	1	부춘아
계	16명 (18명중 2명은 어린이)	

<표 9> 미혼 여성의 결혼상황

순번	이름	출신지역	배우자의 출신지역	결혼시기	직업
1	최영순	이북	충청	1954 (29세)	외향선원
2	김옥순	원산	남한	1954	성동안
3	홍정숙	평양	남한	1954 (27세)	양복집
4	계진화	개성	이북	1955 (22세)	군인
5	김복엽	서울	이남	1954	
6	김영순	서울	이북	1954	
7	부춘아 (이혼)	제주도	황해도	1955 (30세)	(재혼)
8	* ** (1)	진주	고성	전쟁시기	
9	김춘희 (사별)	원산	이북출신	1953년경	(재혼)

최영순은 25세 때 약혼자가 있었지만 혼자 피난올 수 밖에 없었고, 29세에 가서야 결혼하였다. 당시 나이 29세는 결혼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는데, 자신의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8)

북에서 피난오기 전에 약혼했었어...그래서 피난와서도 다시 돌아 갈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은 생각도 안 했지...그러다 이웃 사람이 이제는 북에도 못 가는데 혼자 살면 안된다고 해서 오빠를 소개해주셔서...결혼했어...나도 아무도 없는데...결혼해서 자식이라도 하나 낳아야겠다는

28) 최영순의 인터뷰 내용

생각을 했구 ... 경제적으로 좀 편해 보고도 싶었구...

결국 북에도 못가는 상황에서 정 붙이고 살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것이 부산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김옥순은 1.4 후퇴 때 17세의 나이로 양아버지 따라서 내려와 살다가 1954년 21세에 성당에 다니던 남자와 결혼하였다. 남편이 별다른 경제력이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김옥순은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정숙은 25세의 나이로 혼자 내려왔다가 27세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33세의 남성과 결혼하였다. 계진화도 16살에 할머니 고모랑 내려 왔는데 22살에 여섯살 많은 이북 출신의 군인과 결혼하였다. 그 후 계진화는 남편 월급으로 그런대로 살았다고 당시를 회고한다.²⁹⁾

처음 부산와서는 고구마도 이고 팔았고...동네시장에서 장사도 했어...그러다가 결혼하고...그 때 남편이 군인이었어. 남편도 이북 사람이었는데...남쪽에 와서 군인하게 되었어...그래서 난 다른 일은 안하고 남편 월급으로 살다가...

김복엽도 미혼으로 혼자 피난왔다가 미용기술 배우는 동안 소개로 결혼하게 되었다. 김춘희의 경우는, 처음 피난 올 때 남편과 같이 왔으나, 남편이 장질부사로 죽고, 그 후 1년만에 월남한 남성과 재혼하여 부산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부춘아도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부산으로 왔는데, 30세가 넘어서 중매로 황해도 출신의 남성과 재혼 하였다. 김영순은 중매로 월남한 이북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였고, ***⁽¹⁾은 부모 소개로 고성사람과 결혼하여 살았다.

29) 계진화의 인터뷰

이렇게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은 피난지인 부산에서 결혼을 하고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결혼 시기는 전쟁이 끝난 후 1954년경이 가장 많았다. 북에서 월남한 최영순·김옥순·홍정숙·계진화 등은 1954년 결혼을 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에 정착 하게 되었다고 말 할 수 있고, 남쪽에서 이주한 김영순, ***⁽¹⁾, 부춘아도 결혼을 통해 완전히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당시 이주여성들이 부산에 정착하고 살아 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전쟁 이후의 부산지역 여성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피난과 생계를 위해 몰려 왔던 전시 상황의 부산 지역은 그 많은 피난민들을 끌어 앉을 만큼 여유 있는 곳은 아니었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산재해 있었던 곳이었다.³⁰⁾

첫째, 전쟁 중 특히 여성들이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은 여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들은 남자들이 전선으로 나가 집을 비운 동안 가정전선을 지키면서 전쟁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남성적 활동영역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또 남성이장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역할이 부과된 여성들의 경우는 생활전선에 뛰어 들어야 했다.³¹⁾

이 와중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무엇보다도 성매매가 크게 성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³²⁾. 1952

30) 『부산일보』는 부산 지역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많이 실고 있었는데, 그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위의 몇 가지 점들이 부각되고 있었다.

31) 함인희, 2006, 「광복 60년, 가족제도와 여성 삶의 변화」 『여성과 역사』 제4집, 한국여성사학회, 82-83쪽.

32) 이임하, 2004,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138-39쪽. 1958년

년 부산 해운대에서 외국군인 상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 368명 중 95%가 생활난이 성매매 행위의 원인이라고 대답하였다.³³⁾ 즉 당시 부산 지역에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창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다. 우리 사회는 일제하 1916년부터 공창제가 실시되다가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1947년 공창제가 폐지되었다.³⁴⁾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사창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³⁵⁾.

부산일보는 전쟁 중인 1953년 1월 1일 신년 대담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진단하였는데,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구호의 요체는 자활, 여성의 지위 추락 창녀들 범람”이었다.³⁶⁾ 결국 많은 여성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거리의 여자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실제 생활고를 겪었던 피난지의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섰고 이와 관련한 범법행위도 많이 드러났다.³⁷⁾ 진주에서 온 어떤 여성은

의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65.2%는 생활고가 성매매의 동기였다고 대답하였다.

33)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경찰사』 II, 내무부 치안국, 932쪽.

34) 공창제 폐지는 일제하에서부터 오랫동안 여성운동계의 주요 주장이었다. 해방 후 좌우의 여성계가 하나가 되어 공창제 폐지운동을 전개하였고, 부산 출신의 양한나는 초대 여자경찰서장으로서 그 폐지운동에 주력하였다. 문경란, 1988, 「미군정기 한국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92-93쪽, 106-110쪽. 이송희, 2002, 「양한나의 삶과 활동에 관한 일고찰」 『여성연구논집』 13집, 신라대학 여성문제연구소, 24-26쪽

35) 보건사회부, 1963, 『사회통계연보』, 142-143쪽. 이 자료에 나타난 성 매매 여성의 수는 1954년 26,542명, 55년 56,182명, 56년 79,076명, 57년 87,348명, 58년 83,333명, 59년 40,893명, 60년 42,751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사창에 국한된 수치였다. 실제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6) 『부산일보』 1953년 1월 1일. 「救護의 요체는 自活, 여성의 地位墜落 娼女들 汎濫」

피난으로 부산에 온 이후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몸을 팔았고, 안동에서 온 여성도 몸을 팔다 경찰에 발각되어 검거되었다.³⁸⁾ 이러한 여성들은 당시 무수히 많았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은 많은 여성들의 자살로 이어졌다. 이 때 부산 지역에서는 자살하는 여성들이 많았는데,³⁹⁾ 생계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⁴⁰⁾ 『부산일보』에 따르면 11개월간 488명이 자살하였고 그 중 58%가 생활고였다고 밝히고 있다.⁴¹⁾

둘째, 혼자 사는 여성들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전쟁미망인, 이혼 여성, 단독 월남 여성, 단독 피난 여성 등 다양한 이유로 홀로 된 여성들이 부산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었다.

1950년대 미망인의 숫자는 100만이고 전쟁 미망인의 숫자는 최소 3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부산이 속해 있었던 경남에도 전쟁 미망인이 6만 3천여명에 달하였다.⁴²⁾ 이 같이 전쟁으로 과부가 된 경우는 평균 20세 이상 여성 100명 중의 9.2명(1955년)

37) 『부산일보』 1953년 3월 20일 「창녀끼리의 살인극」: 5월 14일 「사랑을 훔친 동료」, 이 두 기사에서는 창녀들끼리의 범법행위를 보도한 것이다.

38) 『부산일보』, 1950년 12월 12일, 「가난이 有罪인가?」

39) 『부산일보』, 1953년 8월 13일, 「수건으로 목매고, 실연한 다방레지 자살」

40) 『부산일보』, 1951년 2월 7일, 「자살 약값 대기 벅차 살기 싫다」 3월 21일, 「19세 처녀 자살 - 생활고로」, 4월 24일, 「어머니 투신자살 - 신병 비판, 아들 딸 죽이고...」 5월 9일, 「투신자살, 생활고」, 5월 19일 「열차에서 자살」, 7월 16일, 「두딸 데리고 안압지에 투신 - 남편 사별한 젊은 처 살길 없어 자살」, 7월 21일, 「애인 집에서 자살, 창녀였던 식모」, 11월 1일, 「아이업고 자살, 식모 비애 자살」, 1952년 1월 11일 「꼬리무는 자살극」, 1월 22일, 「애인 집 문전서 자살」, 2월 11일 「아내가 의문의 자살」, 6월 17일 「올드미스가 자살」, 1953년 10월 7일, 「돈없는 女工哀話 - 약값 없어 자살하려다 미수」

41) 『부산일보』, 1952년 12월 28일.

42) 『부산일보』, 1953년 8월 29일, 「戰爭未亡人에 朗報 - 婦女事業館에 依托裁縫」.

명으로 계산할 수 있다.⁴³⁾ 과부가 된 여성들이 찾은 첫 도시는 임시수도가 있던 부산이었다. 얼마나 많은 미망인들이 부산을 찾았는지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전 남북 방면 또는 작년 한해 지구에서 부산으로 유랑해 온 인원의 팔할이 과부세대라는 놀라운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임시수도 부산 시청 뒷마당에 매일 같이 모여드는 유랑과부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대책은 긴급한 조치로서 우선 그네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할 단 계에 처해 있다⁴⁴⁾

이렇게 전쟁미망인을 비롯한 홀로 된 많은 여성들이 부산으로 왔기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미망인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극빈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벗어날만한 기반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 사회경험이 없었다. 미망인의 70%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었으며 80%가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였다. 50%가 구호가 필요한 경우였다.

당시 조사(1958년)에 따르면⁴⁵⁾ 남편이 있는 여성의 경우 대상자 198명 가운데 9.6%인 19명 만이 가정 밖에서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미망인은 조사 대상자 80명 가운데 88.8%인 71명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이 종사한 경제활동은 노상에서 좌판을 벌이는 떡장사·야채장사·옷장사·화장품장사 등 영세한 상업에 종사한 사람이 32.5%, 일용노동 28.8%, 공장노동 10.0%, 가내재봉 7.5%, 식료품점 7.5% 등이었다.

이러한 미망인의 문제가 부산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다. 당시

43) 이임하, 앞의 책, 28-31쪽.

44) 이예행, 「전쟁 미망인이 가는 길」 『신천지』 1953년 10월 호, 130-131쪽.

45) 김숙자, 1958, 『서울시 부녀직업조사』, 4-8쪽.

경남도는 부녀사업관을 개관하여 부녀자들의 생업도모를 지원하고자 시도 하기도 하였다⁴⁶⁾. 당시 『부산일보』는 “전쟁미망인들은 생계가 곤란함에 따라 자연 윤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하고 전쟁미망인에 대한 대책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서 급속한 정부대책이 요망된다고 하였다.⁴⁷⁾

그리고 당시 전쟁의 와중에서 많은 이들이 전쟁에서 죽고, 행방불명되고, 사회도덕이 해이되고, 가족의 이산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가족관계가 깨지고 있었다. 특히 첩살이 등 축첩과 관련한 가족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⁴⁸⁾ 혼인적령기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전후 사회에서 축첩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많은 논란과 반대 속에서 1953년 간통 쌍벌죄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⁴⁹⁾

이러한 축첩을 둘러싼 갈등은 처첩간의 폭력사태, 자살, 살해 등의 문제로 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살인 범죄도 많았다.⁵⁰⁾

46) 정부의 원조가 없어 문을 닫았다가 1953년 8월 27일 재개관하고 의탁봉재를 하였다. 『부산일보』, 1953년 8월 29일, 「戰爭未亡人에 朗報 - 婦女事業館에 依托裁縫」.

47)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적십자사는 大韓軍警壽福母子료를 구내에 두고 전쟁 미망인들과 아이들이 살도록 하고, 미망인들에게 상이용사들의 가운을 만들고 샴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도록 도왔다. 『부산일보』, 1953년, 10월 18일 「남편의 뒤따르는 정성」)

48) 『부산일보』, 1953년 12월 5일, 「기녀와 더불어 철창행」

49) 이임하, 앞의 책, 154-173쪽.

50) 부산시, 1999, 『부산여성백서』, 100-101쪽. 이 같이 여성들을 둘러싼 전쟁기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6.25로 인한 전쟁미망인이나 윤락여성들의 생계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산가족의 문제, 구호, 보호, 선도 등의 여성복지 사업을 위해 나름 사업을 시행하였다. 당시 활동한 단체들은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1947),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녀봉사회(1952), 대한조선원회 부산지회(1955), 대한부인회 부산지부(1949) 등이었다.

IV. 이주 여성들의 삶

1. 1950년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앞서 보았듯이, 전쟁 시 부산 지역 여성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떻게 생존을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주 여성들의 경우도 가장 시급한 것이 생계유지였다. 이제 여성들은 자의반 타의반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지에 온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 같이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다.

당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적극적인 면에서 오늘의 부의 창조자이고 생산적 담당자”라는 지적처럼 전쟁과 혼란의 와중에서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일어났고,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일부 남성들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편승하는 경향까지 있었다.⁵¹⁾

날품팔이, 미군부대 세탁부, 바구니장사, 목판장수, 담배장수, 군복장수, 빈대떡집, 대포집, 다방, 덴서, 요리집, 게 오야, 고리대금에 이르기까지 여인의 독차지였으니 완전히 주권을 잡았다 할 것이다. 무능하나 남편들은 아내에게 차값을 타가지고 나가서 광복동 네거리를 하루 종일 어정거렸다..... 차값이 아니라 용돈을 타서 써야 하는 남편, 아내의 별이로 끼니를 이어간 남편은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대 한국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다음 몇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⁵²⁾

첫째, 전쟁으로 인하여 남성의 대규모 동원이 이루어진 1950

51) 마해송, 「한국여성의 비극」 『여원』 1956년 7월, 154쪽.

52) 이임하, 앞의 책, 89-93쪽.

년대 초반에는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즉 전체 직업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949년 35.6%였던 것이 1951년·1952년에는 47.6%와 44.6%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56년 이후에는 45%이상으로 나타난다. 1952년의 경우 14세 이상 여성인구의 97%에 달하는 수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였다.

둘째, 농업 종사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으나, 전체 직업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셋째, 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상업에 종사하는 여성 수가 1949년 81,201명이었으나, 1951년 593,264명, 1952년 597,257명으로 전체 상업 종사자의 50%에 접근하고 있다. 전후에는 1956년 162,157명이었고, 1958년 187,876명이었다.⁵³⁾

그리고 당시의 여성 노동은 여러 자료를 고찰할 때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한국 전쟁 이후 여성의 노동은 전쟁전의 미혼 여성 중심의 가계보조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미혼여성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혼 여성들이나 미망인들이 생계를 위해 적극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다음의 기사는 당시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사변 전 직업여성 통계에 나타난 연령과 혼인별은 18세부터 22세까지의 미혼 여성 수가 최고 숫자를 나타내고 25세 이하로 극히 적은 숫자를 보이고 있음을 당시의 직업여성의 경향이 어디 있음을 잘 말해 주는 것이며 따라서 결혼 연령이 22세 23세까지에 있었다고 하는

53) 상업에 종사한 여성들에 관한 연구는 윤정란, 2007, 「한국 전쟁 이후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한국전쟁과 서울 여성의 삶의 변화』, 한국여성사학회, 25-52쪽. 이 발표에서 윤정란은 서울 여성들의 상업활동에 관해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것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변 이후 벌어야만 생활할 수 있는 미망인들이며 생활의 곤궁함을 타개코자 하는 자녀를 달은 가정주부, 25세 이상으로 30세 40세 이상에 이르는 연령층의 구직이 성하였다.⁵⁴⁾

물론 방직업 등 공장노동자는 여전히 미혼여성이 주축이었으나, 공장에서 하청 받아 하는 샅바느질은 주로 미망인이나 기혼 여성이 했다. 미혼이나 기혼 여성 중 샅바느질이나 세탁 등 집에서 하는 일을 얻지 못한 경우나 딸린 자녀들 때문에 식모로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일용노동을 하거나 공사장 잡일 등에 임시로 고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여성노동은 안정적인 직업보다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직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의 상업, 식모, 판매직에 종사하거나 일용노동자가 되었다.⁵⁵⁾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은 저임금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한편 참담한 것이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한국 여성들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다음의 이태영의 글은 ‘전쟁을 통하여 한국 여성들이 비약적 발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⁶⁾

6.25 동란은 한국 여성을 일변시켰다. 즉 전쟁을 통하여 우리 여성은 자활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의 필요성을 통절히 느끼고 분명히 배웠다.

앞집 뒷집 할 것 없이 여성마다 응분히 사회적 진출에 눈을 떴다.

54) 『동아일보』, 1955년 11월 23일

55) 이임하, 앞의 책, 96쪽.

56) 이태영, 「隸屬에서 自立으로의 過程」 『여원』 1957년 8월, 70쪽.

그리하여 전후에 직장 여성이 부쩍 늘었고 시장에는 여상인이 범람하고 무역회사 기타 회사에서 여사장등의 실업가도 속출하였고 여공무원 여군의 조직 등으로 암탕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 혈관에 감돌고 있는 반봉건적 기반 위에서 과감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해방 12년에 특기할 비약적 발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2. 이주 여성들의 초기 경제활동

이러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특징들은 부산에 이주한 여성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당시 1명을 제외한 17명의 여성들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기혼이거나 미혼이거나, 단신 이주거나 가족동반 이거나, 부산에 이주한 후 그 정착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표10>참조)

<표 10> 초기 경제활동

업종	여성이름	여성수
기술	홍정숙(미용)	1
식모, 날품팔이, 식당종업원, 자본업으로 장사	최영순, 김옥순, 계진화, 김병래, 김복엽, 김성실, 김춘희, 김영순, 부춘아, 석분성, *** (1), 홍춘심	12
장사	문경구, *** (2)	2
영세수공업	김덕재, 최정희	2
전업주부	박옥선	1
계	18명	

먼저 경제활동의 참여 계기를 본다면 처음 피난 와서는 생계가 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 여성들은 기술이나 자본이 없었고 인적인 관계도 풍부하지 못하여, 주로 단순노동을 파는 업종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경우 장사를 하였고, 기술이 있는 경우 영세수공업장을 운영하였다.

먼저 기혼 여성들을 살펴보겠다. 김성실은 1.4후퇴 때 가족들과 같이 대구로 내려와 1년 정도 살면서 미나리도 팔고 샴바느질도 하면서 살았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부산으로 왔다. 그러나 역시 기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어서 자신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빨래를 했고 남편은 노동을 했다. 김춘희는 남편과 함께 미군군함을 타고 왔는데 역시 생계가 막연하여 공사장에서 자갈이나 벽돌을 나르는 등 잡역을 했다. 이 경우 별다른 기술과 자본이 없었기에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조금 나은 경우로, 문경구는 남편이 과거 북에서 군청에서 일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자신이 양담배 장사를 했다. 그래도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문경구는 제부가 군인이어서 주거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 (2)의 경우는 남편이 미군부대에서 운전을 해 그 당시 경제상황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지만 담배장사와 빵장사를 했다. 이 여성도 생계가 시급한 경우는 아니지만 집에 있지는 않았고, 경제사정이 되는 대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영세수공업을 한 경우, 김덕재는 전쟁 후 남편이 재단사로 부산에 직장을 구하여 왔지만, 그 것으로는 어려워 빵도 만들어 팔고 국수도 내다 팔았다고 한다. 그래도 이 여성은 전쟁이 시작되고 3년 후에 왔고 남편이 직장을 찾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한 경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자본을 필요

하지 않는 빵과 국수를 만들어서 파는 가내 영세 수공과 상업을 겸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한 경우이다. 최정희는 남편이 목수여서 남편은 문짝을 짜고 자신은 파는 일을 했다. 때문에 당시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박옥선은 남편이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으나 부산에 온 이후 조달청에서 근무하여 전업주부로서 살았다. 18명의 여성 중 유일하게 밖에서 경제활동하지 않고 지낸 경우였다.

이렇게 기혼 여성들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 하였다.

그리고 미혼이나 독신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역시 가장 많았던 것이 일용노동이었다.

최영순은 혼자 내려와 처음 남의 집에 농사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배짜고 농사 일도 꽤 잘해서 배급을 받지 않고도 지낼만 하였다. 김옥순은 양아버지와 함께 내려와 결혼 전에는 양아버지의 아래서 집안일을 하며 지냈다. 그런데 당시 양딸은 무급으로 양부모의 일을 돕다가 나이가 들면 시집을 가는 것이었기에, 사실 어린 여성들의 고용살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⁵⁷⁾

계진화는 16세에 할머니 고모와 함께 내려왔으나 살길이 막막하여 고구마 장사 등 동네시장에서 자본이 들지 않은 장사를 했다. 어린 나이인데도 생계를 위해 장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순은 미혼으로 가족과 함께 내려왔는데, 떡장사를 했고, 부자집 아이보아주기 등 닥치는데로 일을 했다. ***⁽¹⁾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왔는데, 장사를 하기도 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했으며, 술집 부엌일을 하기도 하였다. 아무런 가진 것이 없었기

57) 이 경우를 식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키워주는 대신에 그에 해당하는 집안 일을 하다가 양부모가 짝을 지워주면 시집을 가는 경우였다. 이임하, 앞의 책

에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겠다. 부춘아는 이혼하고 혼자 부산에 와서 국제시장에서 사탕장사를 하고, 고무공장에도 다니는 등 닥치는대로 일을 했다.

이렇게 이들은 때로는 노동을 하고 때로는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김복엽은 본적은 서울인데 강원도에서 교편 잡다가 국군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당시 처음 와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다. ⁵⁸⁾

배타고 내리니까 각자의 생계는 각자 꾸려야 된다. 배에서 내려만 주고 어떻게 먹고 사나 싶어서 길거리를 다녔다. 길거리 벽에 식모, 집원 구하는 포스터를 보러 다녔지. 피난 올 때 치마 하나에 저고리 하나 입고, 뭐 아무 것도 없이 왔으니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러니 뭐든 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식모로 들어 갔는데 그런 일은 처음이라. 안해 봐서.....그 때 부산에 물이 귀해서 식모가 물을 저날랐는데 물을 처음 저보니 집에 와서 보니 물이 반도 없고 옷은 흠뻑 젖어서 ...일도 못하고 주인이 내하는 일이 눈에 차겠나? 나도 못하겠고, 뒤에 양과자점에 일을 구해서 일했다. 양과점은 밤새 남자 직원들이 안에서 만든 빵을 내가 가게에서 파는 기라. 월급도 없었다.

그 후 김복엽은 편물을 짜서 국제시장에 넘기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미용기술을 배워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그나마 미혼 여성 중에는 기술을 배운 여성들이 있었다. 홍정숙은 다행히 북에서 미용기술을 배웠기에 미용실에 취직하여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 때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해주기도 하였다.

김병래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였는데, 원래 혼인 이틀 전에 도

58) 김복엽의 인터뷰

망하여 북으로 갔다가 전쟁 후 남으로 내려왔다. 이유는 종교박해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성당에서 생활하였는데, 부산에 와서는 장교 기숙사에서 밥해주는 일을 하기도 하였고, 육군병원에서 일했다. 후에 성당과 메리놀병원에서 오래 있었고, 고아원에서 원감으로 있는 등 종교단체에서 일했다.

13세의 어린 나이로 외숙모와 같이 부산에 온 석분성도 장사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홍춘심도 국제시장에서 오렌지 주스를 팔고 과자장사를 했다. 홍춘심은 학교 못 다닌게 제일 아쉽다고 회고하였다.

이같이 이주 당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보면, 기술을 갖고 있는 여성은 1사람에 불과했고, 몇 명(교사, 종교활동)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전쟁 전에는 거의 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피난과정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숙련 단순 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고, 때문에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낮은 이익을 내 거의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단계에 머물렀다.

이같이 부산 지역 이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보았을 때, 당시 한국 사회 여성경제활동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농업이 아닌 다양한 업종에의 활동이 증가하였고, 특히 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이 미혼 여성 중심의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기혼여성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의 노동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것이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대다수의 여성들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의 상업, 식모, 판매직에 종사하거나 일용노동자였다.⁵⁹⁾

59) 18명 중 12명이 식모, 날품팔이, 식당종업원, 자본 없는 장사 등에 종사하였

하지만 이러한 경제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이 장사 방법 등을 터득하게 되고, 또한 나름 부를 쌓기도 하여 조금 큰 장사에 나서는 등 한 사람의 경제활동가로서의 면모를 차츰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⁶⁰⁾

3. 이주 여성들의 정착 후의 삶

1) 정착 후의 경제활동

이렇게 어렵게 이주생활을 시작한 여성들의 정착 후의 경제활동은 어떠하였는가? 이 때 18명의 여성 중 나이 어린 2명만 제외하고 다 결혼 상태였다. 때문에 정착기에 있어서의 여성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 더욱 치열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주 여성들의 경우 가족의 의미는 어떤 다른 여성들보다도 남달랐다고 보인다. 그 것은 살기 위해 기존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산까지 왔기에 더욱 끈끈하고 강했다고 보인다.

경제활동에서 본다면 정착 초기의 경제활동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몇 가지 변화가 보이고 있다.

먼저 기술업종의 경우를 보면 김복엽이 미용기술을 배웠다. 그래서 70세까지 40년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부산미용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여전히 가장 많이 했던 직종이 노동이었다. 자본도 없고, 별다른 기술이 없으니 일용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최영순은 남편이 외항선원이기는 하였지만 자신도 여전히 식당일이나 산모 밥

음을 볼 수 있다.

60) 김복엽의 경우 이 때 미용기술 배워 70세까지 미용실을 40년간 운영하면서 부산미용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문경구는 이 때 시작한 장사로 국제시장에서 핸드백장사 유아복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해주기 등의 일을 계속 하였다. 김옥순은 결혼 후에도 남편의 별이가 시원치 않아 공사장에서 모래 자갈도 지어나르고 꿀꿀이 장사도 하고, 타일공장에도 나가고 미군들 비웃도 만들었다. 결혼 후에도 별다른 경제적 안정을 얻지 못하였다. 김춘희는 26세에 재혼한 경우였는데, 정착시기에도 여전히 날일 품팔이 하는 것으로 연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떡팔고 밥팔고 단무지 공장에 다니고, 하수구 청소를 하는 등 힘든 육체노동을 하였다. 김영순, *** (1)의 경우도 결혼하였으나 여전히 남편과 같이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⁶¹⁾ 부춘아는 재혼 이후에도 계속 가족을 위해 노동일을 해야만 했고 홍춘심은 세탁공장을 다녔고, 미싱 시다 노릇을 하였다.

차츰 장사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는데 나름대로 작은 자본이기는 하지만 그 것을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계진화는 남편의 제대 후 같이 작은 슈퍼를 운영하였다. 문경구는 국제시장에서 핸드백 장사를 하고, 가게 얻어서 유아복 장사를 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던 이라서 다른 일을 못해 자신이 장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어서 꽤 돈을 벌었고 나중에 남편이 직장을 잡고 해서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유복하게 살아온 경우라 하겠다. 신의주에서 온 *** (2)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실장사도 하고 기모노 장사도 하여 꽤 돈을 벌었다. 남편이 군인이어서 남들 보다 형편이 좋은 편이었다.

작은 규모의 가족 단위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김덕재는 남편이 가족잡바를 만들면 내다 파는 일은 자신이 맡아서 했다고 한다. 그래서 돈을 제법 모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냥 장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남편이 원래 양복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기에 가면 남편과 함께 했다.⁶²⁾ 김성실의

61) *** (1)은 나중에 부평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했다.

경우는 집에서 가내 수공업 정도의 작은 인쇄소를 시작하여 남편과 같이 일했다. 원래 남편이 재단 기술이 있어서 남의 집 일을 하다가 자신들의 인쇄소를 시작한 것이다. 최정희는 계속 목수하는 남편과 같이 파는 일을 하였다.

박옥선은 여전히 전업주부로 계속 살았다. 김병래는 독신으로 메리놀 병원에도 근무했고, 고아원 원감을 오랫동안 지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들 여성들의 경제 상황은 정착 이후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차츰 자리를 찾아갔다고 보이고, 여전히 박옥선을 제외한 이주 여성들 모두가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가정 생활

이러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가정생활은 어떠하였는가? 앞 서 보았듯이(<표8>참조) 18명의 이주 여성들 중 7명 만이 기혼 상태였고, 실제 8명(2명이 나이 어림, 1명 독신)이 부산에 이주한 후 결혼하였다.

먼저 기혼 여성들의 가정생활을 살펴 보면, 이들은 이주 이전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이주시 자의든 타의든 합의하여 같이 온 경우이다. 두 부부만 온 경우는 드물고 많은 경우 자식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온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부산으로 이주 후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보면 더욱 끈끈한 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하여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단순히 피난으로 부산에 온 것이 아니고 김덕재, 박옥선, *** (2) 등과 같이 남편의 직장을 따라 온 경우도 있어서, 일단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미혼으로 왔다가 나중에 결혼한 여성들의 배우자들보다도 남편들의 경제적 역할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춘희의 경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나머지

62) 김덕재는 남편이 죽은 후 보험회사를 다녔다.

6명의 경우 대체로 남편의 기존의 경제적 기반이 부산에서의 정착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다고 보인다. 문경구의 경우 물론 실제 남편이 초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장사 기반은 남편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11>참조)

<표 11> 기혼여성 남편들의 직업

이름	남편직업
김덕재	재단사
김성실	노동, 인쇄소
문경구	공무원→무직→총무부장
김춘희	노동
박옥선	교사→조달청
최정희	노동→목수
* ** (2)	미군부대운전
계	7명

그러나 당시 여성들은 남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와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성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질문에 많은 이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 길러 오는 게 힘들어. 그 때는 물이 귀해서 한참을 걷다가 그걸 이고 또 걸어오는데 어휴- 그게 다 여자 일이야. 물길러 나르기가 힘든 일인데 남편은 인쇄소 일 한다고 안 도와줬어⁶³⁾

다 힘들지 뭐 다 힘들었어. 남자 여자가 어디 있나, 똑 같이 일하는

63) 김성실 인터뷰

데... 여자가 남자하는 힘든 일도 하고. 지금은 못 해. 힘든 일일 수록
살이 나오니까⁶⁴⁾

그 때 여자들, 애들 혼자 돌보는 것이 당연했어. 그 거 힘들다는 생각
없었어. 어린 애를 업고 일하러 다녔지만 그 것가지고 투정 부릴
새가 없었어. 애들 한 끼라도 덜 굶게 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어. 부
평동 꼭대기에 살았는데 ... 남편이 몇 년 아팠을 때가 가장 힘들
었어.⁶⁵⁾

아이들 돌보는거... 그 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 그냥 공부시키고...먹
이고...장사한다고 ...너무너무 바빴어...바빠서 힘들줄도 모르고 살았어.
그 때는 다 그랬지 뭐...⁶⁶⁾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쟁 하에서 여성으로서 힘들었던 부분 보
다도 당시 상황이 힘들었고 어쩔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생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자신보다는 가족이 살아야 한다는 생
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다보니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가족 공동체
단위로서 부산 지역에 차츰 뿌리 내리고 살았다.

미혼 여성들⁶⁷⁾은 대체로 1954년 이후 결혼했음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나이도 그렇지만 북한 출신의 여성들은 이제 북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출신 4명의 여성 중 3명이 남한 출신의 남성

64) 김춘희 인터뷰

65) 최정희의 인터뷰

66) *** (2)의 인터뷰.

67) 전쟁 시기 미혼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안태운, 2007, 「딸들의 전쟁: 미혼여성
들이 겪은 한국전쟁과 그녀들의 삶」 『한국전쟁과 서울 여성 삶의 변화』, 한
국여성사학회 개최 발제문, 55-88쪽.

과 결혼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혼 현상은 이제 부산 이주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부산 지역 정착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편들의 직업을 보면 외항선원, 양복집 점원, 군인 등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직종들이었다. 결혼도 생존의 도구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모든 미혼 여성이 결혼 후에 생활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것은 남성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부산에 기반이 없었던 이주여성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⁶⁸⁾

전쟁 시기의 성비를 보면 1952년에 20-24세의 연령층의 전국 성비는 83, 25-29세의 89로 성비가 불균형했고, 그 결과 결혼 적령기의 여성이 적당한 신랑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⁶⁹⁾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은 남성과의 결혼,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재혼 남성과의 결혼 등 평상시와는 다른 결혼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⁷⁰⁾

미혼으로 와 부산에서 결혼한 김옥순은 당시의 고단한 결혼생활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⁷¹⁾

68) 미혼 여성들의 경우 전쟁으로 가족을 떠나게 되면서 성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었고, 전쟁중의 사회적혼란은 우발적인 만남을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69) 성비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를 말하며, 대부분의 나라가 102에서 106의 성비를 보인다. 1949년의 성비는 20-24세 101, 25-29세는 103이었다. 이흥탁, 1992, 「한국전쟁과 출산력 수준의 변화」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변동』, 41-42쪽.

70) 당시에는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북에 본처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북이 아닌 이남 땅에 큰마누라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박완서, 2004,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76쪽. 125쪽

71) 김옥순의 인터뷰. 사실 당시 전쟁 전 북한에서도 여성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깥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 후의 급박한 상황이 여성들을 생활전선으

남편이 성당에만 다니고 돈을 벌어 오지 않아서 ...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아이들은 집에서 굶고 있을 때 작은 애를 업고 장사 나서기도 했어. 어떡하든 아이들 뭐라도 먹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생각 뿐이었어. 힘들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 그 땐... 남편의 돈으로 한달이라도 생활해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

당시 여성들은 김옥순처럼 더욱 강한 생활력으로 가족경제에 기여했다. 당시 남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장을 대신하여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걸 내가 못하면 식구대로 다 죽는다 싶으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일했다'는 것이 여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최영순은 여성으로서 힘들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⁷²⁾

남편이 술마시고, 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힘들었어. 그래도 큰 아들만 고등학교 보내고 나머진 다 대학까지 보냈지. 어떡하든 아이들 한끼라도 더 먹이고, 공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다는 생각이 나 남편 원망할 겨를이 없었어.

당시 여성들은 부산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이 반드시 맘에 들고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심지어 속은 결혼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가족 경제를 담당하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로 내몰았다고 한다. 안태운, 앞의 글, 83쪽.

72) 최영순의 인터뷰

V. 맺 음 말

본고에서는 현재의 부산지역성과 지역여성의 정체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1950년대 부산지역 이주여성들의 삶을 18명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삶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쟁시 부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여성 문제들, 한국사회의 여성경제활동 참여 등을 함께 고찰하여 보았다.

대상으로 한 18명의 이주여성은 10명이 이북출신이고 8명이 이남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주 당시 기혼이 7명이고 미혼이 9명, 어린 나이의 소녀가 2명이었다.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피난을 왔고, 5명의 여성이 단독으로 부산에 왔다.

이 연구에서 이주 여성들의 삶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이들 대부분이 피난을 목적으로 부산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월남한 여성들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51년 1.4후퇴시 국군이나 미군의 권유로 남하를 한 경우가 많아 정치적 사상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전쟁과정에서의 피난으로 월남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남쪽에서 이주한 여성들의 경우는 1950년 전쟁이 나면서 바로 부산을 목표로 피난오거나, 또는 새로운 삶을 찾아 온 경우였다.

둘째, 18명의 이주 여성들의 부산정착의 계기는 대체로 세 가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부산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산이 임시수도로서 인척이나 고향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에 이주여성들은 부산정착을 결심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계기로 부산에 정착하였다고 보인다. 18명 중 8명의 미혼여성이 거의 1954년 즈음 부산에서 결혼 하였고, 기혼 여성 1명도 남편이

죽은 다음 부산에서 재혼하였으며, 이혼 여성도 재혼하였다. 10명의 여성이 부산에서 남편을 만난 것이다.

셋째, 부산지역에 이주한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치열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들이 종사했던 업종을 보면 가장 많았던 것이 역시 노동이었다. 식모나 보모, 산모들 밥해주기, 식당일, 공사장에서 잡일, 점원, 미군 부대 빨래하기, 술집 부엌일, 세탁공장, 고무공장, 미싱시다, 하수구청소 등 다양한 노동에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본 없이 노동력으로 장사하는 행상의 경우도 많았다. 꿀꿀이죽 장사, 떡장사, 밥장사, 고구마장사, 오렌지쥬스 장사 등과 같은 경우이다. 경제활동 인구 17명 중 12명이 이런 노동에 참여하였다. 기술을 가진 이는 1명이었고, 그나마 조그만 자본이 있어서 소규모의 장사를 한 경우가 2명이었고, 영세 수공업장 운영이 2명이었다. 이주여성들은 기혼 여성과 미혼여성을 구분할 필요 없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 정착 후에도 이들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가장의 역할까지도 하였다고 보인다.

넷째, 이들의 가정생활을 보면 먼저 기혼 여성들의 경우, 남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와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쟁 하에서 여성으로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시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 살아야만 한다는 생존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다보니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가족 공동체 단위로서 부산 지역에 차츰 뿌리 내리고 살았다.

당시 미혼 여성으로 부산에서 결혼한 여성들도 결혼한 남편이 반드시 맘에 들고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심지어 속은 결혼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가족 경제를 담당하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더욱 강한 생활력으로 가족경제에 기여했다. 당시 남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장을 대신하였다.

이러한 50년대 부산지역 이주 여성들의 삶은 몇 가지 점에서 부산 여성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산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고 보인다.

첫째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다. 사실 전쟁 이전 여성들은 밖에 나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제약적이었는데, 이러한 이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그 벽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이주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들이 차츰 가장의 역할까지 하게 된 점이다. 부재하는 가장, 무능한 가장을 제치고 이제 여성들이 명실상부하게 가장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 여성들은 이렇게 강인하고 의지 있는 여성들이었음에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가족 공동체만을 강조하는 여성들로 후퇴하는 측면도 있었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부산일보』 『민주중보』 『신천지』 『여원』
- 강정구, 1992, 「해방후 월남 동기와 계급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변동』, 풀빛.
-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밑으로 부터의 월

- 남민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수자, 「한국전쟁과 월남 여성들의 전쟁경험과 인식」 『한국전쟁과 서울 여성의 삶의 변화』, 한국여성사학회
 - 김숙자, 1958, 『서울시 부녀직업조사』.
 - 김엘림, 2006, 「여성입법운동의 전개와 성과」 『여성과 역사』 4집, 한국여성사학회.
 - 류춘도, 2005, 『병어리새』, 당대.
 - 문경란, 1988, 「미군정기 한국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박명선, 1991, 「월남가족의 경제생활사」 『여성 가족 사회』 창간호,
 - 박영구, 2005, 『현대부산의 제조업』 1945-2000,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박완서, 1994, 『나목』, 세계사.
 - 박완서, 2004,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 보건사회부, 1963, 『사회통계연보』
 - 부산직할시, 1991, 『부산시사』 제3권.
 - 부산광역시, 1999, 『부산여성백서』,
 -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 1997, 『부산시 여성관련 단체 편람』
 - 배석만, 1999, 「미군정기 부산항과 도시민 생활」 『지역과 역사』 제5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 배석만, 2003, 「달동네와 철거민, 피난민」 『부산의 역사』, 선인.
 - 블루스 커밍스. 1986, 『한국 전쟁의 기원』 김주환 옮김, 청사.
 - 안태윤, 2007, 「딸들의 전쟁: 미혼 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과 그 녀들의 삶」 『한국전쟁과 서울 여성의 삶의 변화』, 한국여성사학회
 - 이성숙, 2007,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여성 섹슈얼리티」 『한국전쟁과 서울 여성의 삶의 변화』, 한국여성사학회
 - 이송희, 2002, 「양한나의 삶과 활동에 관한 일고찰」 『여성연

구논집』 13집, 신라대 여성문제연구소.

- 이송희, 2006, 「여성사회의 변화」 『자료로 본 부산광복 60년』, 부산광역시.
- 이숙의, 2007, 『이 여자, 이숙의』, 삼인.
- 이임하, 2004,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 이임하, 2005, 「한국전쟁과 여성생활 세계의 변화」 『한국여성의 생활 세계와 의식변화』, 한국여성사학회
- 이임하, 2006, 「전쟁미망인의 전쟁경험과 생계 활동 - 군경 미망인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가을호.
- 이정은, 2002, 「한국 전쟁과 잊혀진 여성들의 삶」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1, 사람생각.
- 이흥탁, 1992, 「한국전쟁과 출산력 수준의 변화」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변동』
- 윤정란, 2007, 「한국 전쟁 이후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한국전쟁과 서울 여성의 삶의 변화』, 한국여성사학회.
- 조 은, 2006, 「분단 사회의 ‘국민’되기와 가족: 월남가족과 월북가족의 구술 생애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 71호
- 조 형 박명선, 1985, 「북한 출신 월남인의 정착 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 최영호, 1995, 「재일 한국인의 본국 귀환, 그 과정과 통제구조」 『한일관계사 연구』 4,
-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경찰사』 Ⅱ, 내무부 치안국
- 함인희, 2006, 「광복 60년, 가족제도와 여성 삶의 변화」 『여성과 역사』 4집, 한국여성사학회.

【국문초록】

본고는 현재의 부산지역성과 지역여성의 정체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1950년대 부산의 여성들의 삶을 18명의 이주여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대상으로 한 18명의 이주여성은 10명이 이북출신이고 8명이 이남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주 당시 기혼이 7명이고 미혼이 9명, 어린 나이의 소녀가 2명이었다.

2장에서는 부산으로 온 이주여성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피난을 왔고 5명의 여성이 단독으로 부산에 왔다. 이들의 이주 시기는 대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과 1.4후퇴 시기인 1951년이 주를 이루었다. 즉 피난을 목적으로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정치적 사상적 동기보다는 전쟁과정에서의 피난으로 부산에 왔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부산 정착을 고찰하였다. 18명의 이주여성들의 정착의 계기를 대체로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부산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인척이나 고향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점이다. 셋째,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계기로 부산에 정착하였다.

4장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구체적 삶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았다.

18명의 여성중 1명을 제외한 17명은 생활전선에 뛰어 들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이 종사했던업종을 보면 가장 많았던 것이 역시 노동이었다. 경제활동 인구 17명 중 12명이 노동에 참여하였다. 기술을 가진 이는 1명이었고, 그나마 조그만 자본이 있어서 소규모의 장사를 한 경우가 2명이었고, 영세 수공업장 운영이 2명이었다. 이들 이주여성들은 기혼 여성과 미혼여성을 구분할 필요 없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

정착 이후의 이주 여성들의 삶을 보면, 기술을 가진 이가 2명으로 늘어났고, 노동에 종사하는 이는 7명, 장사에 종사하는 이는 3

명, 전업주부 1명, 직장 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가정생활을 보면, 기혼 여성들의 경우,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보면 더욱 끈끈한 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하여 잘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와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혼 여성들은 부산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이 반드시 맘에 들고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가족경제를 담당하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더욱 강한 생활력으로 가족경제에 기여했다. 당시 남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장을 대신하여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핵심주제어: 한국전쟁, 1950년대, 이주여성, 월남여성, 이남여성, 기혼여성, 미혼여성, 피난, 정착, 경제활동, 가정생활

【Abstract】

A Study on the Moving Female that came from other district to Busan after the Korean War

Lee, Song-hee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life of the Busan moving female that came from other district after the Korean War and to discover the identity of the busan women in now. It is based on eighteen women's oral statements. Ten of them are of North Korea origin and eight women are of South Korea origin. The married women of them are seven, nine women are not married, two female are too young to marry.

The majority of the women sought shelter at Busan during the Korean War. They settled down in Busan because of economic conditions that allowed them the minimum right to live, human relation and marriage that gave them the community and family life.

They took part in the economic activity after wove to the Busan. Only one woman had a beauty treatment, twelve women labored in various places, and two women were engaged in business. Two women managed cottage industry with husband. One woman was housewife. They shouldered domestic economy, whether they were married or unmarried. They took part in the economic activity ardently in the process of settlement.

Looking at their homelife, most of married women had good relation with their husband. They were responsible for homelife and childcare, though they were engaged in living. The moving female that married after move to Busan, shouldered domestic

economy and they served sacrifice life for her family, even if they were unsatisfied with their husband and their married life were unhappy.

The moving female's strength and the economic activity, the responsibility for homelife and childcare, sacrifice life for her family, and so on, made the Busan women's identity at that time, have succeeded to Busan women partly in nowadays.

Key words : the Korean War, 1950s', the Busan moving female, North Korea origin, South Korea origin, married women, unmarried women, shelter, settlement, economic activity, homelife